

차이는 절망과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그 현대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²⁴⁾를 확인해보면, 체펠린호가 일본인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상 시 「且8氏の出發」과 비행선 ‘Z伯號’ 사이의 관련성

지금까지 ‘Z伯號’가 세계일주 도중에 일본에 기착한 사건이 일본인들의 심리적 내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영향이 安西冬衛의 시 「一九二七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살펴보았다. 문제는 과연 이상이 자신의 시 「且8氏の出發」에서 安西가 사용했던 ‘輪不輾地’를 사용하면서 체펠린호라는 비행선의 기술적 문명과 관련된 배경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가 하는 여부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상은 이미 「且8氏の出發」이 포함된 ‘建築無限六面角體’ 연작 중 한 작품인 「AU MAGASIN DE NOUVEAUTES」의 한 구절에서 이미 이 ‘Z伯號’, 즉 체펠린 백호를 언급한 바 있다.²⁵⁾

快晴の空中에 鵬遊하는 Z伯號 蝨蟲良藥이라고 쓰여져 있다.²⁶⁾

(李箱, 「AU MAGASIN DE NOUVEAUTES」 부분)

24) 이외에 天野隆一의 시 「白夜物語」(『一九三〇年詩集』, 東京: アルス, 昭和5年(1930), 6면)에서는 이 체펠린호를 ‘Z伯號’로 언급하며 등장시키고 있으나 그에 대한 특별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25) 당시 『東京朝日新聞』은 체펠린백호를 “ツエ伯號”라 통칭하고 있었고, 『大阪朝日新聞』은 ‘Z伯號’라고 통칭했다. 한편 당시 『朝鮮日報』는 체펠린호를 ‘첵伯號’, ‘체伯號’ 등으로 지칭하고 있었으므로 이상이 ‘Z伯號’라는 표기를 빌어온 것은 아마도 『大阪朝日新聞』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26)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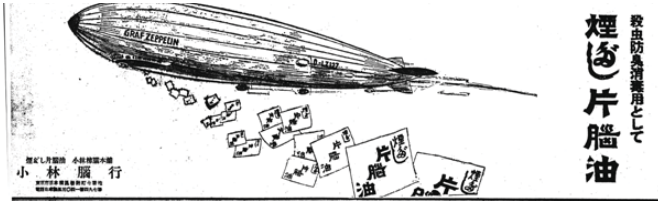
“快晴の空に鵬遊するZ伯號。蝨蟲良藥と書いてある。”

이 시 「AU MAGASIN DE NOUVEAUTES(새로움들의 백화점에서)」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편린들을 마치 스케치하듯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²⁷⁾ 위에 인용된 행은 이 시 속에서 의미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독립된 한 행에 해당한다. 쾌청한 하늘 위에 마치 『莊子』의 ‘鵬’²⁸⁾과도 같은 ‘Z伯號’가 떠 있는데 그 표면에는 ‘蛔虫良藥’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력 상, 그가 1929년 8월경 일본 동경에만 왔다 갔던 Z伯號, 즉 체펠린호를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체펠린호에 대한 정보를 신문기사나 앞서 언급했던 관련 시들을 통해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시에서는 ‘Z伯號’의 표면에 ‘蛔虫良藥’이라고 써 있다고 하니, 이는 아마 체펠린호를 활용한 광고를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것이다. 당시 『朝日新聞』에는 체펠린호를 이용한 광고들이 자주 게재되었는데 초반에는 독일산의 기계부품이나 영사기(필름, 렌즈) 광고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의약품광고나 식품광고로 이어졌다. 특히 <그림 4>의 『東京朝日新聞』에 광고된 ‘糠漬の素’는 의약품은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기능²⁹⁾을 갖고 있는 의약품인데 이것의 기능과 광고의 형태를 보면 이상이 위의 시 구절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광고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주로 묘사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위 시에서 이상이 ‘Z伯號’에 대한 특별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자’의 ‘鵬’에 비견되는 ‘Z伯號’가 고작 자본주의 광고에 활용되는 현실

27) 이 시는 형식적으로 볼 때, 당시 『詩と詩論』에 자주 실렸던 ‘시네포엠’이라는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동인들 중 하나였던 竹中郁 등은 위의 형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을 짧은 행 속에 묘사하듯 시 창작을 한 바 있다.

28) 이 ‘鵬’은 『莊子』의 內篇, ‘逍遙遊’에 등장하는 새이며, 북녘 검푸른 바다의 거대한 물고기인 ‘鯨’이 변하여 된 것으로 등 넓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새이다. 이상이 ‘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Z伯號’를 ‘鵬’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안병주, 전호근 譯註, 『莊子 1』, 전통문화연구회, 2001, 26-44면.)

29) 이 의약품의 효능 일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流行病菌、寄生虫卵殺菌、病原を豫防します’(유행병균, 기생충알을 살균하고, 병원을 예방합니다.)이 적혀 있다(『東京朝日新聞』, 1929.8.21, 4면 광고).



<그림 3> 『東京朝日新聞』, 1929.8.21, 6면 광고



<그림 4> 『東京朝日新聞』, 1929.8.21, 4면 광고

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시대비판적인 정서를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처럼 이상이 ‘Z伯號’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시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면 아가의 ‘輪不輾地’를 바로 安西의 앞 시의 맥락에서 끌어왔을 여지에 있어서도 보다 그럴만한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³⁰⁾

輪不輾地 展開된地球儀를앞에두고서의設問一題

(이상, 「且8氏の 出發」 부분)

「且8氏の 出發」의 위 구절 속에서 보자면 ‘輪不輾地’는 다름 아니라 ‘展

30) 당시 체펠린백호의 일본 도착이 조선인들에 있어서도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朝鮮日報』 역시 비록 단신(短信)이나마 1929년 8월 13일부터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싣고 있었다는 사실과 체펠린백호의 도착에 관해서 1929년 8월 21일에는 신문지면 3면의 반을 할애하며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朝鮮日報』, 1929.8.13-15, 각 3면; 8.17-23, 각 3면 관련 기사 참조).

開된 地球儀'를 앞에 두고서 제출된 설문 중의 하나이다. '展開된 地球儀'가 3차원의 입체인 지구를 2차원 평면의 지도 위에 풀어놓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 이는 <그림 5>처럼 당시 신문에 게재된 북극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체펠린호의 비행 궤적을 표시한 지도를 연상하도록 하는 바가 있다. 즉 '輪不輾地'라는 구절은 이상의 이 시에서 '비행의 가능성'이라는 安西 시의 맥락과 관련되어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且8氏の出發」이 체펠린호와 관련된 시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大阪朝日新聞』 1929.8.30, 1면

5. 모더니티에 대한 절망적 의식과 꽃 없는 식물의 생존방식

「且8氏の出發」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龜裂이生긴' 진창 위에 '棍棒'을 하나 꽂는다. 이 '棍棒'은 수목(樹木)으로 변하여 사막 위에 울창한 산호나 무를 이룬다. 또한 이 '棍棒'은 '사람에게地面을떠나는아크로바티를가르치는' 존재이다. 즉 이 '棍棒'은 '輪不輾地'라는 비행 가능성을 통해 인간에게 지구의 모양을 전개하여 보여주었던 체펠린백호의 길쭉한 원통형의 모양을 비유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Z伯號'라는 비행선은 분명 인간으로 하여금 공중을 비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술은 아니며 동서양의 균열된 모더니티 지형도를 딛고선 기계문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棍棒'이란 이중적인 의미, 즉 인간에게 비행 가능

성을 상기하도록 하는 ‘Z伯號’ 자체이면서 서구의 기계문명을 상징하는 울창한 산호나무를 이루는 원인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龜裂이生긴莊稼泥의地에한대의棍棒을꽃음. / 한대는한대대로커짐. / 樹木이盛함. / 以上꽃는것과盛하는것과의圓滿한融合을가리킴. (중략)

滿月은飛行機보다新鮮하게空氣속을推進하는것의新鮮이란珊瑚나무의陰鬱한性質을더以上으로增大하는것의以前의것이다.

輪不輟地 展開된地球儀를앞에두고서의設問一題

棍棒은사람에게地面을떠나는아크로바티를가르치는데사람은解得하는것은不可能인가.

(이상, 「且8氏의 出發」 부분-밑줄 인용자)

한편 위에서 밑줄로 강조된 대목은 분명 당시 체펠린호에 탑승했던 에케나 박사의 인터뷰를 상기하도록 한다. 에케나는 일본 도착 직후 했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본에서 보았던 달이 자신의 고향에서 본 달과 같다는 의미로 ‘그날아침의달이첼伯號와함께日本으로 száll아온것과가티생각된다’³¹⁾고 말한 바 있으며 이 인터뷰 내용은 安西의 시 속에 고스란히 인용되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달이 비행선을 따라왔을 리가 없으므로 이 에케나의 발언은 당시의 아시아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동시성을 충족해주는 발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에케나 박사의 인터뷰를 받아 이상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맥락에서 ‘滿月은飛行機보다

31) 당시 『朝鮮日報』(1929.8.21)는 일본에서 행했던 에케나 박사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전재하고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宴會를맛친『에케나-』博士는記者에게對하여簡單히

署名도아모것도絶對로謝絶합니다오늘밤은조금머리가압혀서宿所로도라가서卽時休養을하도록하여주시오旅行中에는한사람도病人이업고참으로愉快하게지내었습니다그만큼하고오늘밤은容愜해주시요

라고말하얏다그리고小『에케나-』氏는

여기는『푸리드릿히스하-펜』과같은感想이난다그날아침의달이첼伯號와함께日本으로 száll아온것과가티생각된다”(밑줄 인용자)

新鮮하게空氣속을推進하는것의新鮮'이라 표현하고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유라시아 대륙을 4일 만에 횡단했던 비행선 체펠린보다도 빠르게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건너온 것이다. 달이 비행선보다도 빠르게 공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산호나무가 울창해지기 전, 말하자면 서구의 기술문명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의 일인 것이다. 비행가능성이란 적어도 '달'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인간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비행할 수 없다. 이상은 절망하는 安西와는 달리 이를 동서양 사이의 모더니티적인 간극이 아닌 인간의 보편성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棍棒'이라는 도구 없이 그것이 가르치는 '아크로바티'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地球를掘鑿하라

同時에

生理作用이가져오는常識을拋棄하라

熱心으로疾走하고 또 熱心으로疾走하고 또 熱心으로疾走하고 또 熱心으로疾走하는 사람 은 熱心으로疾走하는 일들을停止한다.

沙漠보다도靜謐한絶望은사람을불러세우는無表情한表情의無智한한대의珊瑚나무의사람의脖頸의背方인前方에相對하는自發의인恐懼로부터이지만 사람의絶望은靜謐한것을維持하는性格이다.

地球를掘鑿하라

同時에

사람의宿命的發狂은棍棒을내어미는것이어라

(이상, 「且8氏의 出發」 부분)

여기에서 이상은 오히려 그렇게 절망하기보다는 역으로 지구를 굴착하라고 명령한다. 인간은 땅을 발로 디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을 떠다니는 모더니티를 동경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성의 구조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생리작용이나

고정관념 같이 인간의 물리적인 삶을 규정짓는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차라리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물리적인 지하 혹은 정신적인 내면 아래로 침잠하는 삶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이미 이러한 비행기술과 기계문명이 구축한 현대성의 모더니티가 결국은 인간들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절망의 구조를 띠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이상이 ‘三次角設計圖’ 연작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이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속도를 관념 속에서 실험했던 바의 연장선에 해당되는 것이다.³²⁾ 빛보다 빠른 엄청난 속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결국에는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계기로 남게 될 뿐인 것이다.

또한 이상은 인간의 ‘발광(發狂)’을 두 가지 차원, 즉 숙명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으로 나눈다. 인간의 숙명적인 ‘발광’은 ‘棍棒’을 내미는 것, 즉 ‘Z伯號’와 같은 기계문명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인 ‘발광’이기도 한 것인데 인간이 구축한 기계문명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지점이면서 한계의 지점이기도 한 까닭이다. ‘且8氏’의 온실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隱花植物’이 꽃을 피웠던 것은 분명 자발적인 행위일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且8氏’가 감광지³³⁾에 비추어 만들어낸 인공적인 조화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대성의 모더니티로부터 도주하고자 했으나 결국 다시 간헐 수 밖에 없는 숙명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32) 송민호, 「李箱의 『線에關한覺書』에 나타난 시공간 차원과 분신의 주제」,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구문화사, 256-266면 참조.

33) 1920-30년대 초현실주의자였던 만레이(Man Ray)는 사물을 감광지 위에 얹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었으며 이를 레이요그램(rayogram)이라고 명명한 바 있으며, 모호리 나기(Moholy-Nagy) 역시 비슷한 시도를 하였고 이를 포토그램(photogram)이라고 명명했다. 이상은 『朝鮮と建築』 권두언에서 위의 ‘모호리 나기’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6. 결론

본고는 그간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상의 초기 일문시들 중 하나인 「且8氏의 出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莊子』의 직접인용, 혹은 패러디로 생각되던 ‘輪不輾地’(바퀴는 구르지 않는다)가 실제로는 일본의 『詩と詩論』의 동인이었던 安西冬衛의 시 「一九二七年」에서 이미 똑같은 형태로 바꾸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상이 『莊子』로부터가 아니라 安西의 해당하는 시의 원래 맥락으로부터 해당하는 구절을 차용해왔을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安西의 이 시는 1929년 8월 세계일주 도중 동경을 방문한 체펠린백호, 즉 ‘Z伯號’를 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것인데 그는 ‘輪不輾地’를 비행가능성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Z伯號’는 서구의 기계문명의 총아로서 동서양 사이의 절대적 거리를 시각화함으로써 모더니티의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적 정황을 고려하자면, 이상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輪不輾地’를 차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且8氏의 出發」이 기존의 해석대로 성적인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시라든가 구본웅과 관련된 시라기보다는 이전에 발표된 ‘三次角設計圖’의 연장선에 위치한 인간에게 내재된 한계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관념 실험의 일종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에 스스로 종속되는 양상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었다.

李箱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오면서 이상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적 방법론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교 문학적 방법이나 문화연구적 방법 등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단지 정보의 질과 양적인 유사성의 측면이 아닌 정보의 전파경로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문학 텍스트 속에서 초월적인 현대성의 사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해석적 계기이자 해석적 다양성의 총족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상 자신의 사상 속에 그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의 텍스트 속에는 분명 그가 동시대에 경험했던 지식, 문화, 예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일종의 전고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그것들을 추적해내어 이상이 경험했던 당시의 문화예술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한문 문헌

- 이어령 교주(1978), 文學思想資料研究室 編, 『李箱詩全作集』, 갑인출판사.
- 이승훈 엮음(1989), 『李箱문학전집1』, 문학사상사.
- 김주현 주해(2005), 『이상문학전집』 1, 소명출판.
- 권영민 엮음(2009), 『이상전집 1』, 문학에디션 뿔.
- 고은(1974), 『이상평전』, 민음사.
- 권영민(2009), 『이상텍스트연구-이상을 다시 묻다』, 문학에디션 뿔.
- 김윤식(1992),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 김윤식(1998), 『이상 문학 텍스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주현(1999), 『이상 소설 연구』, 소명출판.
- 김주현(1999), 「이상 문학의 텍스트 확정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학회, 307-334.
- 김주현·최유희(2001), 「이상 문학의 원전 확정 및 주석 연구」, 『우리말글』 22, 우리말글학회, 275-306.
- 루쉰(1996)·김시준 역, 「아큐정전」, 『루쉰(魯迅)소설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민호(2007), 「李箱의 「線에關한覺書」에 나타난 시공간 차원과 분신의 주제」,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구문화사, 247-272.
- 안병주·전호근 譯註(2001), 『莊子 1』, 전통문화연구회, 2001.

2. 외국문헌

- de Syon, Guillaume.(2005), *Zeppelin! Germany and airship, 1900-1939*, 박정현 역, 『비행선, 매혹과 공포의 역사』, 도서출판 마티.
- Schivelbusch, Wolfgang.(1999),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 川村湊(1987), 유유정 역, 「모더니스트 이상의 시세계」, 『文學思想』.
- 蘭明(2008), 「李箱における横光利一受容の深層-『上海』および「青い大尉」との葛藤」, 『日本研究』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87-209.
- 蘭明(2009), 「李箱 「地図の暗室」を浮遊する“上海”-横光利一受容及びその他」, 『日本研究』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73-294.
- 下村宏(1930), 『飴ん棒』, 東京: 日本評論社.
- 東亞學藝協會 編(1929), 『全日本詩集』, 東京: 文書堂.
- 澁谷榮一(1931), 『赤き十字架』, 東京: 交蘭社.
- 詩人協會 篇(1931), 『一九三一年詩集』, 東京: アトリエ.
- 詩人協會 篇(1930), 『一九三〇年詩集』, 東京: アルス.
- 鈴木楨治郎(1893), 『莊子講義』, 東京: 興文社.
- 小柳司氣太 譯(1920), 『莊子』, 東京: 國民文庫刊行會.
- 발행자 없음(1910), 『和譯漢文叢書 第1編 老子, 莊子』, 東京: 玄黃社.
- 『詩と詩論』1-14, 東京: 厚生閣書店.
- 『東京朝日新聞』, 『大阪朝日新聞』, 『朝鮮と建築』 외

원고 접수일: 2009년 9월 29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7일

ABSTRACT

Study on the Authentic Precedent in Yi-Sang's Early Poem, 'Mr. Cha8's Departure(且8氏의 出發)' and the Dual Structure of Modernity

Song, Min-ho

This Study tries to interpretate one of Yi-Sang's early poems, 'Mr. Cha8's departure'(且8氏의 出發). In the meanwhile, one verse in the poem, 'a wheel doesn't roll'('輪不輾地'), is thought as the direct quotation from *Jang-ja*(『莊子』) by a lot of researchers. In fact, Yi-sang quoted that verse from Fuyue Anzai's poem, 'Year 1927,'(in Shitoshiron 『詩と詩論』6, 1930), not from *Jang-ja*(『莊子』). This fact could be checked with confirming the similarity of the deformatig that verse in Yi-sang's poem and Anzai's poem.

Anzai wrote 'Year 1927' motivated by the event which the german airship, Graf Zeppelin('Z伯號') arrived at Tokyo through the Europe-Asia continent in 1929(Zeppelin achieved a world travel through Tokyo). At that time, the arrival of Zeppelin affected the mental attitude of most of Japaneses to the western modernity. Many japanese poets wrote poems about Zeppelin's arrival and achievement with the emotion of jealousy and hope. Anzai's poem also suggests the despair of japanese to western machine civilization and the mental triumph with old oriental philosophy.

The verse in the poem, ‘a wheel doesn’t roll’(‘輪不輾地’) is quoted just as such a context.

Most importantly, Yi-sang also possibly quoted the verse in the same context from Anzai’s that poem. Yi-sang already wrote a word Zbaekho(“Z伯號” ; it is an abbreviation for Graf. Zeppelin.) in a poem, ‘AU MAGASIN DE NOUVEAUTES’. If so, there is a new way to analyse Yi-sang’s difficult poem, ‘Mr. Cha’s departure’(「且8氏의 出發」). Yi-sang proposes new survival method against western machine civilization represented by Zeppelin through that poem. That method is ‘digging’. Like Dostoyevsky’s ‘underground liver’, Yi-sang felt tired of modern civilization. He criticized the duplicity of the western modernity providing despair and hope to the people in asia.

